

# 신형 아이폰 특하면 먹통... 애플, 제품설계 문제있나

아이폰 XS·XS맥스 문제점 발생  
“높은 가격에 버그?” 이용자 불만  
기술 문제로 에어파워 출시도 지연

지난달 21일 애플이 출시한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XS와 아이폰XS맥스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제품을 받아서 사용해 본 사용자들이 문제점을 잇따라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애플 제품설계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여러 미국 IT매체가 일부 아이폰XS 및 아이폰XS 기기에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도 충전이 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해당 기기 사용자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애플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필 실러가 아이폰XR, XS, XS맥스 등의 가격을 소개하고 있다.

/애플 키노트 영상

이런 상황에 대한 조치 방법도 다양해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려 기기를 켜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폰을 켜고 충전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해서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화면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충전케이블을 꽂으면 아예 기기가 먹통이 되는 현상도 있다고 전해진다.

원인에 대해 맥루머스는 “iOS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폰아레나는 “소프트웨어 버그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다”면서 “이렇게 높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기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에 앞선 9

월 25일에는 사용자들이 아이폰XS가 낮은 전파 강도에서 수신률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호소했다. 무선 전문가 앤드류 셰퍼드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이폰XS/XS맥스 테스트 문서를 보고 이미 수신률과 전송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셰퍼드는 “안테나 설계를 바꿔서 이득(gain)을 늘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면서 “이것은 새 리비전에서 가능하거나 아이폰4처럼 차기작에서나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신감도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위웨이브랜스는 아이폰XR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에서 측정해보니 수신률이 아이폰XS 및 XS맥스 보다 확연하게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이폰XS의 판매가는 999달러, XS맥스는 1099달러부터 시작한다. 749달러부터 시작하는 아이폰XR보다 뒤지는 수신률이

원래 의도한 성능일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의 제품설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디자인 부서 등의 힘이 강하다보니 탄탄한 하드웨어 설계 능력이 떨어진다는데 의견이다.

실제로 애플이 2017년 9월에 야심차게 공개한 무선충전패드 ‘에어파워’는 아직도 출시되지 않고 있다. 올려놓는 것만으로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애플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던 기기도. 또한 이번 신제품 출시에 맞춰 업데이트된 애플 홈페이지에서 에어파워는 보이지 않는다.

원인에 대해서 6월 블룸버그는 에어파워 출시가 기술적 난제를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디넷 역시 9월 12일 보도를 통해 너무 야심찬 구상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IT기업 2題



## 클라우드 서비스도 ‘블록체인’ 시대

IBM·오라클·아마존 등 시스템 개발 박차  
국내서도 전자문서 보관 프로젝트 추진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 금융기술 분야에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접목한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IBM은 리눅스 재단과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 영역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오라클, 아마존, MS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도 일찍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의 앱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발 툴킷을 제공하는 등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라클은 최근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객에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기존 사용 중이던 타사의 서비스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적용 중이더라도 통합 적용해 빠르게 적용 시킬 수 있는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PaaS),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이더리움 연합(EEA)의 초기 멤버인 컨센시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칼레이도’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도입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용 울인원 Saa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전세계적으로 웹기반의 클라우드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형 기업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메이드세이프는 일반 개인 PC의 남은 저장공간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개해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개념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PC의 소유자는 보상으로 세이프코인을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유휴 스토리지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속속 등장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의 보관, 저장에 특화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디스켓이라는 뜻의 비스켓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돼 생성된 데이터들의 효율적인 보관과 안전한 보존에 이어 경제적인 보관비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응용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비스켓 프로젝트는 다차원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인증 플랫폼인 애스톤 기반의 디앱(DApp)으로 개발이 진행되며, 애스톤 플랫폼 위에서 생성되는 모든 전자문서와 데이터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비스켓 프로젝트 관계자는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탈중앙화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파일럿에서 상용화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그중 클라우드 분야가 가장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범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애물을 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5G앞두고 외국계 IT기업 ‘좌불안석’

이달 내 KT·LGU+ 장비 우선협상자 발표  
페이스북 등 망 중립성 문제도 부상 전망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장비 선정 등 세부적인 사안부터 정책 이슈까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기업·정부의 결단이 촉구되고 있다.

◆5G 장비, 中 기업 화웨이 여전히 ‘고민 중’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5G 장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10월 중순 이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3사를 5G 장비 공급자로 이미 선정한 바 있다. 내년 초 상용화를 위해서는 늦어도 10월에는 구축에 나서야 한다.

KT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5G 장비 공급 업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중국 기업 화웨이가 꼽힌다. 화웨이는 5G 장비 가격과 기술 면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도 인정하는 기업이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과 보안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화웨이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미국에서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의 흑이 불거진 이후 세계적으로 화웨이를 5G 장비 선정에서 제외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도 걸림돌이다.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동통신사의 특성 상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KT의 경우 SK텔레콤의 화웨이 장비 공급자 제외 결정 이후 이 같은 수순을 밟

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발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과 KT와 달리 이미 롱텀에볼루션(LTE)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경험도 있다. 따라서 기존 LTE망 구축 당시 도입한 장비를 연동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5G 트래픽 폭증 시대, 폐북·유튜브 등 해외 기업 ‘역차별’ 바로 잡나

5G가 상용화될 경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기업과 관련된 망 중립성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때문에 상용화 이전에 정부에서 망 중립성 재정립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제공업체(IPS)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해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CP들은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하게 적게 내는 등 역차별 이슈가 얽혀왔다. 그러나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시대에는 이러한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라는 역차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트래픽 발생량으로 따지면 사실상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해외 IT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튜브는 캐시서버를 두고 망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